

세계유산 '5·18 증언 영상' 체계적 관리 시급

'5·18영상채록단' 4년 노력 결실
238명 증언 313시간 영상채록
2011년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 기록물 중 313시간 짜리 영상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의 뒤에는 '5·18영상채록단'의 노력이 있었다. 24일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기록물 중 5·18유가족·시민·외신기자 등 238명의 증언이 담긴 영상의 제작은 '5·18 영상채록단'이 맡아 진행했다. 지난 1995년, 5·18의 진상규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는 5·18 당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광

주 YMCA 산하에 '5·18영상기록특별위원회' (이하 5·18영상특위)가 꾸려졌다. 5·18영상특위는 5·18의 주역들과 당시를 겪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18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같은 해 9월 1차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5·18영상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5·18영상특위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성을 갖춘 실무기구인 '5·18영상채록단' (이하 영상채록단)을 설치했다. 영상채록단은 증언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명동에 5·18영상채록 스튜디오를 개설해 촬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뜻

을 같이 하는 5·18유가족의 1000만원 후 원금과 자체 모금, 자발적 개인들의 후원금, 광주시 보조금 등을 모아 총 2867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영상채록단은 영상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방송용 ENG 카메라와 '베타캠' 테이프를 사용했다. 당시 테이프 개당 가격이 3만원이 넘지만 화질이 가장 좋고 보존성이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자료적 가치의 부분적 손실과 테이프를 본 사람들이 증언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테이프는 절대 복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영상채록단은 다양하고 폭 넓은 인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현재까지 이들은 238명(당사자 132명, 시민 증언 103명, 일본인1명, 외신기자 3명 등)의 증언자들을 만나 영상채록을 했고,

증언 테이프만 566개에 채록시간만 1만 8798분(313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작업을 이뤄냈다. 이는 증언자 한명당 1시간 30분 가량에 테이프 3개 분량이 소모되는 양이다. 이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5·18 전문가들은 "이 영상의 구술증언 자 중 일부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신다"면서 "당시 5·18영상채록단의 영상 자료는 5·18 진상 규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록물인 만큼 정당한 평가와 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계자도 "5·18의 생생한 증언은 5·18의 중요한 자료"라면서 "앞으로 이 영상을 토대로 2차 콘텐츠 작업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감사 사각지대

설립후 10년간 한번도 없어
교육청 출신 특채 의혹도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학교안전공제회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학교안전공제회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특수법인으로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안전공제회는 최근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하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교육청 관료 출신을 특별채용(우대)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특별 감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제회의 채용 자격기준대로라면 시 교육청 출신이 아니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자료를 내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청 관료 출신을 특별채용하고 있고, 시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등 시 교육청이 공제회를 장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직원 채용 등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학부모에 4만원 쇼핑몰 포인트

무상급식 예산 75억여원 사용

전남교육청이 지역 학부모들에게 쇼핑몰에서 직접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4만원 상당의 쇼핑몰 포인트를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3·4월 무상급식 예산 중 75억 5896만원을 긴급 사용예 초·중·고, 특수학교 19만명의 학생들에게 '남도장터 쇼핑몰' 포인트를 학부모 ID에 지급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다음달 6일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특히,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1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학부모가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필요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품목도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확대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과 식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2차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원 품목 확대와 학부모 선택권 보장으로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창업보육센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호남대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교내 5호관 3층에 입주해있는 11개 기업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입주기업이 내야하는 보증료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1999년 개소한 호남대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게 보육공간, 경영 기술지도와 정보 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전문 보육기관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 서구,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자원사업 선정

광주시 서구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처음 추진한 자치구 평생학습도시특화모델 및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서구는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치구의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확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대비한 전략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지역주민들에게 학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요구 조사 및 만족도 평가 사업, 평생동아리 자원 네트워크 컨설턴트 양성 및 파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협광주·전남본부 함평 양파농가 일손 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3일 함평읍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 부족한 일손 해소를 위해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日 수출규제 '포토레지스트', 전남대 주도 개발 나섰다 2023년까지 55억 연구비 투입

전남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 중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전남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인 EUV 무기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정부에 제안해 연구개발 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기술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된 '무기 나노입자 기반 하이브리드형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과제는 오는 2023년까지 모두 55억여 원의 연구비가 투입돼 진행된다. 'EUV 무기 포토레지스트'는 소재·부품·장치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국내핵심소재이며, 기존의 유기(organic) 소재가 아닌 무기(inorganic) 소재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도 국내 최초이다. 유기 포토레지스트가 지난 선풍 불굴일성, 낮은 에칭저항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국책연구에는 원천기술보유기관인 전남대를 비롯해 포항공과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나서고, 참여 기업은 주관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DCT머티리얼·JSI실리콘 등으로 모두 6개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